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2.1(금) ~ 2023.12.7(목)

제공일시 2023 12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기간 : 2023.12.1(금) ~ 2023.12.7(목)

제공일시 2023 12 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뉴스 클리핑 주간자료

1. WTO, 탈탄소화 위한 철강 표준원칙 채택

- 세계무역기구(WTO)는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표준원칙을 채택함
- 이 원칙은 철강 산업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철강 표준원칙의 공동 목표는 △철강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을 위한 표준화된 방법론의 확립 △혁신적인 친환경 기술과 제품의 채택을 통한 제로배출로의 전환 △상충되는 측정 표준으로 인한 무역 장애물의 완화임
- 주요 철강 생산업체와 산업 협회를 포함한 35개 이상의 주요 이해관계자들도 이번에 발표된 표준화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철강 표준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힘

(글로벌이코노믹 2023.12.5) 김진영 기자

2. 한국 포함 118개국, COP28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대 서약

- COP28에 참석한 200여 곳의 나라 가운데 118개국이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현재보다 3배 늘리는 협약에 이름을 올림
- 주요국인 미국과 유럽연합(EU) 그리고 한국과 브라질, 나이지리아, 호주, 일본, 캐나다, 칠레 및 멕시코도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뜻을 모음
- COP28에 참여한 과반의 국가가 협력해 2030년까지 약 1만 기가와트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추가하겠다고 약속한 셈임
- 중국과 인도는 지지의사는 내비쳤지만, 협약에 공식적으로 이름을 올리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됨

(비즈니스포스트 2023.12.3) 이근호 기자

(데일리한국 2023.12.3) 안희민 기자

3. “안팔려도 처분 못해”... EU, 미판매 의류 폐기 금지/에코디자인 규제 개정안 합의

- 유럽연합(EU)이 팔리지 않는 의류 재고 등에 대한 폐기를 금지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함
- 5일(현지시간) AFP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등은 이날 역내 의류 사업자를 대상으로 팔리지 않는 옷과 신발 등 의류품 폐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에코디자인 규제’ 개정안에 합의함. 저가 유행 의류를 대량 소비하는 이른바 ‘패스트패션’을 단속하겠다는 취지임
- 이날 승인된 개정안에는 팔리거나 반품이 된 의류품을 그대로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이용, 다른 상품에 재활용, 수선, 기부 등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김
- EU는 소비자가 구입한 옷이 찢어지거나 신발 바닥이 닳았을 때 얼마나 간단하게 수선할 수 있는지를 지수화해 상품 설명에 기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 법안은 전환기간을 거쳐 2년 뒤 시행될 예정임

(이데일리 2023.12.6) 방성훈 기자

1. 환경부, 포항에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 조성… 희소금속 추출·재활용

- 환경부는 5일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서 폐배터리 순환경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집적단지 착공식을 개최함
- 포항 블루밸리 국가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이번 집적단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폐배터리 발생 급증을 예상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에서 희소금속 등 광물자원을 추출해서 배터리 제조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임
- 집적단지는 배터리 산업 진흥과 연구·실증화 시설을 갖춘 연구지원단지와 블루밸리, 영일만 산업단지 내 배터리 재활용기업이 입주하는 기업집적단지로 구성함. 준공은 2025년 6월로 예정하고 있음
- 주요 실증시설은 유용 광물을 포함한 블랙 파우더(BP) 제조, 유기금속 추출(용매추출), 폐수처리 공정 시스템, 배터리 성능평가 등임

(데일리안 2023.12.5) 장정욱 기자

2.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

- 해양수산부는 6일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지정했다고 밝힘
- 해양수산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1억5315만t, 2020년 기준)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해,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 신항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을 24만㎡ 규모로 지정함
- 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항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기존의 에너지허브(LNG+오일)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이 확대됨
- 또, 울산항에 약 9600억원의 민간투자자와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 연간 약 210만t 규모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됨

(문화일보 2023.12.6) 조해동 기자

3. 중기부, 금융투자사와 ‘유망 기후테크기업’ 발굴한다

- 중소벤처기업부가 5일 중소벤처 탄소중립(GX)을 위한 금융권 민-관 협력 협약식을 개최함
- 협약은 금융투자사(6개 증권사),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간 상호 긴밀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됨
- 이를 기반으로 유망 기후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배출량 인증·거래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발적 탄소 감축 참여 환경을 조성함

(뉴스1 2023.12.5) 이민주 기자

(뉴스스 2023.12.5) 이수정 기자

4.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핵심’ 위험성평가 의무화, 올해 도입 무산

- 정부가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한 노사의 위험성평가 의무화 제도가 무산된 것으로 확인됨
- 정부는 당초 판단을 바꿔 위험성평가를 노사에 강제하지 않더라도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고, 처벌 위주의 안전체계 확산에 대해 우려함
- 하지만 위험성평가 의무화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대안적 대책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방안이었던 만큼 노동계는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임

(서울경제 2023.12.5) 양종근 기자

1. ‘美, 中 견제 불구’ 포드, 중국 인도네시아 니켈 정제 합작사 합류

- 미국 포드가 중국 화유코발트, 브라질 발레와 합작투자 계약을 마무리 짓고 인도네시아산 니켈을 조달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화유와 손을 잡아 눈길을 모음
- 6일 화유코발트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이사회에서 포드, 발레 인도네시아와 니켈 제련소 합작투자 최종 계약을 만장일치로 승인함
- 화유코발트는 양사와 합작사 ‘PT Kolaka Nickel Indonesia(KNI)’를 설립함. 세 회사는 솔라웨이 포말라에 제련소를 짓고 2026년 생산을 시작함. 투자액은 약 38억4215만2000달러(약 5조430억원)임
- 포드는 양사와의 합작투자 계약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니켈을 수급해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함

(더구루 2023.12.6) 오소영 기자

2. “오스테드 ‘친환경 e-메탄올 프로젝트’ 속도 낸다”

- 재생에너지 기업 오스테드가 ‘친환경 e-메탄올 프로젝트’에 속도를 내고 있음
- 오스테드는 지난 1일 COP28에서 유럽연합(EU)-캐털리스트 파트너십과 오스테드가 추진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함
- EU 집행위원회와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캐털리스트, 유럽투자은행으로 구성된 EU-캐털리스트 파트너십은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혁신성과 해상 운송업의 탈탄소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높이 평가함
-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캐털리스트는 자금 조달 조건의 충족에 따라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지분 15%를 인수하고 보조금을 제공할 예정임
- 오스테드는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해운 산업이 e-메탄올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 향후 그린 연료 생산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장기공급계약 체결을 추진할 예정임

(에너지데일리 2023.12.4) 변국영 기자

3. 딜로이트, MIT, NYU, ASU와 함께 전문가를 위한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출시

- 딜로이트가 MIT 슬론스쿨오브매니지먼트, NYU 스텐비즈니스스쿨, 애리조나주립대 등을 포함한 150개 이상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위한 지속가능성, 기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함
- 컨설팅, 리스크 및 재무자문, 세무 및 감사 등 사업전반에 걸쳐 지속가능성, 기후, DE&I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전문가들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임
- 딜로이트는 지난해 41만명의 글로벌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성 및 기후학습 프로그램을 교육한 바 있음

(ESG투데이 2023.12.4) 마크시걸 기자

1. 에코프로, 삼성SDI에 44조 양극재 공급… ‘현대차 등 차세대 유럽 전기차 대응’

- 에코프로비엠이 삼성SDI에 44조원 규모 양극재를 공급함. 전기차 수요 둔화로 배터리 업계가 부침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온 초대형 계약임
- 에코프로비엠 양극재는 삼성SDI에 공급돼 현대자동차가 유럽에 출시할 차세대 전기차 등에 적용됨
-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일 충북 청주시 본사에서 삼성SDI와 양극재 중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힘. 하이니켈계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양극재를 내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총 5년간 공급하는 내용으로, 금액은 약 43조8676억원임
- 에코프로비엠은 내년 물량은 포항사업장에서 만들어 삼성SDI에 공급할 계획이며, 내후년부터는 헝가리 공장에서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함

(전자신문 2023.12.3) 이호걸 기자

(조선일보 2023.12.2) 이정구 기자

2. 포스코, 포항 이차전지 단지서 산업용 가스 연 25만t 생산한다

- 포스코는 경북 포항시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내 위치한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연산 25만t 규모의 산업용 가스 생산 설비를 착공했다고 5일 밝힘
- 포스코는 이곳에 1천억원을 투자해 산업용 산소와 질소를 연 25만t 생산할 계획임
- 내년 하반기에 대형 저장 탱크를 먼저 설치하고, 오는 2025년 하반기까지 공기 중 산소와 질소를 분리·정제하는 공기분리장치(ASU) 설비를 준공할 계획임
- 이를 통해 이차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재와 전구체 생산공정 및 니켈 정제공정에 사용될 고순도 산소와 질소를 공급할 예정임

(연합뉴스 2023.12.5) 이슬기 기자

3. 삼성물산, ‘1700억 규모’ 호주 BESS 프로젝트 수주/삼성물산, 김천에 탄소제로 ‘그린수소 공장’ 짓는다

- 삼성물산이 호주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사업을 수주함
- 호주 에너지 인프라 기업 지너스플러스그룹(GenusPlus Group)은 1일 삼성물산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빅토리아주(州) 멜버른 재생에너지 허브(MREH) 1단계 BESS 사업의 설계·조달·시공(EPC) 및 시운전 계약을 수주했다고 밝힘
- 이 사업은 멜버른 상업지구에서 북서쪽으로 25km 떨어진 MREH에 600MW/1600MWh 규모 BESS를 건설하는 것으로, 오는 2025년 6월 완공이 목표임
- 한편,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경북 김천에 국내 최초로 상용 그린수소 생산 시설(조감도)을 만든다고 30일 밝힘. 외부에서 전기, 가스 등을 제공받지 않고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는 오프그리드 방식으로 진행됨
- 삼성물산은 하루 0.6t의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저장·운송 가능한 인프라를 내년 12월까지 구축하고 2025년 1월부터 생산에 나섬

(더구루 2023.12.1) 홍성환 기자

(서울신문 2023.11.30) 윤수경 기자

4. 두산, 수소 직접 넣는 건물·주택용 수소연료전지 개발

- (주)두산이 수소연료를 직접 투입해 사용하는 1kW·10kW급 건물·주택용 수소연료전지 ‘H2-PEMFC(고분자전해질형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힘
- 해당 제품은 고정형 연료전지 안전기준인 ‘KGS AH371’의 설계 및 생산단계 인증도 획득함
- 두산은 향후 분산 발전용·모빌리티용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 제품 라인업을 다각화할 계획임

(연합뉴스 2023.11.30) 이승연 기자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기간 : 2023.12.1(금) ~ 2023.12.7(목)

제공일시 2023.12.15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정책센터 문의 02.398.7675

COP28, 청정수소 기준 정한다... 39개국이 청정수소인증서 상호인정 약속

- 지난 5일(현지시각) COP28 기후정상회의에서 39개국이 재생 가능 및 저탄소 수소, 수소 파생상품에 대한 인증서를 상호 인정하는 선언문을 발표함
- 선언문에 서명한 국가들은 일본, 독일, 나미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인도, 미국,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등 39개국임. 중국은 서명국이 아니라고 유럽 환경 미디어인 유랙티브가 전함. 상호 인정에 참가한 나라들은 수소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이 동맹은 청정 수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같은 기준을 활용함으로써 더 원활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함
- 참가자들은 인증 계획을 상호 인정할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를 신속히 개발할 것이라고 전함
- 프레임워크는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십(International Partnership for Hydrogen and Fuel Cells in the Economy, IPHE)과 수소 기술 협력 플랫폼(Hydrogen TCP)이 조정한 수소 표준 및 인증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짐
- 네덜란드 부총리 시흐리드 카흐는 유랙티브에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설명함. 이어 “이 표준은 역사상 처음으로 장거리에 걸쳐 재생 가능한 청정 수소의 국경 간 흐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함
- 수소와 관련한 새로운 기준은 국제표준기구(ISO)의 일련번호를 받아 글로벌 표준으로 출시됨
- ISO 회장 울리카 프랑케는 “COP28 수소에 관한 회의는 국제표준화기구가 개발한 수소 공급망의 온실가스 배출 평가 방법론을 공개함을 의미한다”라고 수소위원회 성명을 통해 전함. 공식 명칭은 ‘ISO/TS 19870:2023’인 것으로 알려짐
- 최근 누출된 수소가 기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ISO 표준에 누출 평가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짐
- 프랑케 회장은 새로운 방법론이 “수소의 생산과 소비 경로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와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원동력이자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함

(임팩트는 2023.12.7) 유미지 기자